

간호대학 신입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이현주¹ · 김덕진²

우석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¹,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²

Mediating Effect of College Adjust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mong First-Year Nursing Students

Hyun Ju Lee¹ · Duck Jin Kim²

¹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Woosuk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college adjust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first-year nursing students. **Methods:** This descriptive research involved 250 nursing freshmen at two local universities and analyzed data from the final 170 students. Descriptive statistics, the independent t-test, the Kruskal-Wallis test, the Mann-Whitney U test,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employed for data analysis. The mediating effect was assessed following Baron and Kenny's three-step verification procedure,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was determined by bootstrapping. **Results:** Academic adjustment ($\beta=.24, p<.001$) and institutional adjustment ($\beta=.20, p=.004$), sub-factors of college adjustment, were identifie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s self-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eta=.47, p<.001$). **Conclusion:** Enhancing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first-year nursing students could become more effective through the development of programs focused on career exploration and counseling, which include content to promote self-leadership and college adjustment (academic adjustment and institutional adjustment).

Key Words: Adjustment; Leadership; Self-efficacy; Nursing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삶에 있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결정

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대학 시절은 전공과 관련된 이론학습과 실습으로 전공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자신의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대학 졸업 이후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및 적응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진로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과 준

Corresponding author: Duck Jin Kim

College of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55 Dobong-ro, 76 ga-gil, Gangbuk-gu, Seoul 01133, Korea.
Tel: +82-2-920-2662, Fax: +82-2-920-2091, E-mail: kdjin69@Sungshin.ac.kr

- 이 논문은 2023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ungshin Womens's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23.

Received: Oct 26, 2023 / Revised: Nov 30, 2023 / Accepted: Nov 30, 202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 신입생들은 주로 대학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이전의 교육방식과 달리 학점이수, 진로선택과 취업준비 등 수많은 과업과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2]. 이로 인해 상당수의 대학생은 전공학과에 대한 부적응으로 심적갈등 및 대학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며, 이는 낮은 자신감으로 이어져 향후 진로결정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3].

간호대학생의 경우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 의료기술의 향상과 생명 연장 등에 따른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더 많은 간호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졸업 후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의 수가 과거에 비해 많아지고 선택의 기회와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1,3]. 하지만 비교적 높은 취업률과 직업적 안정성만을 고려하여 전공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간호학과에 지망하는 신입생이 많고, 이로 인해 학과적응에 대한 어려움으로 학업성적이 저조하거나 전과나 휴학을 고려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4,5].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은 타 학과와 비교해 신입생 때부터 해부학, 의학용어 등의 기초의학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위한 전공지식 습득의 양이 과중한 편이다[2]. 또한 이론학습과 더불어 임상실습까지 병행해야 하는 학과의 특성으로 인해 간호대학생은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며, 이로 인해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6].

최근 간호사의 진로분야는 임상 외에도 학교, 지역사회, 산업장 등 다양하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능동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후 진로 상황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과 그 판단에 따른 능동적인 실천이 필요하다[7].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간호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병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설명 및 채용정보 전달, 면접기술 등의 취업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다양한 진로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2,3].

자신의 진로결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으로 표현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업선택과 계획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결과를 보인다[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의 취업 준비를 위한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 이후 전 생애 동안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2]. 따라서 간호학과 입학과 동시에 신입생 시기부터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진로에 대해 충분히 성찰한 뒤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

고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5].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통제, 책임감 그리고 자율성이 강조되는데 이때 유용한 개념이 셀프리더십이다[9]. 셀프리더십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말하는데, 스스로 자신을 '리드'하여 '참된 자신의 리더'가 되는 것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10]. 대학 시기는 직업세계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선택을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셀프리더십은 진로문제의 해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7].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셀프리더십은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자기보상과 자기통제를 하는 등의 자율성을 갖는 행동, 생각과 감정 등에 대한 내적 리더십으로 설명된다[7]. 셀프리더십이 높으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상승시키고 대학생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어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6]. 따라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셀프리더십은 미래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생각과 감정 및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이 된다. 즉, 개인이 적응 과정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의지나 주변 대처자원을 찾으려는 행동들이 대학생활적응에 필요한 개인 내적자원을 증진시켜 주어 결과적으로 적응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11].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내적인 특성이므로 외적이고 상황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며[7], 내적 리더십인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관계가 어떠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셀프리더십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6],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12-14]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2]를 검증하여 각 변수들이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일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파악한 연구[7]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셀프리더십은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학생활적응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세 변인 간

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탐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재확인하고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상호 영향력이 있는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간호대학 신입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탐색할 때, 셀프리더십과 대학생활적응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진로 탐색 및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 신입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 간호대학 신입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 신입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2개 지역 대학의 간호대학 신입생인 1학년이며,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자이다. 대상자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중간효과크기 .15, 검정력 .80, 예측변인의 수 10으로 설정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118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하여 수집된 자료는 총 172명이었으며, 응답이 일부 누락된 2명의 자료를 제외하

고 17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책임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0000000-2023-029)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진행하는 수업이 없는 학기에 학생 대표에게 연구의 취지와 진행방법을 설명한 뒤, 온라인 설문링크를 전달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연구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발적으로 해당 링크를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은 연구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가 첫 화면에 나오도록 구성하였으며, 동의에 체크한 학생의 경우 설문지 링크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에 대한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여부, 설문 진행 중 자율적 중도 탈락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설명문 및 동의서를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서만 사용되도록 익명으로 코드화할 것임을 공지하였고, 소정의 답례품 제공을 위해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종료 후 즉시 폐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일반적 특성 8문항(성별, 졸업 고교 유형, 종교, 지원동기, 희망진로, 리더 경험, 리더십 교육 경험, 리더십 교육 요구), 셀프리더십 35문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5문항, 대학생활적응 25문항을 포함하여 총 9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셀프리더십

본 연구에서의 셀프리더십은 Houghton과 Neck [9]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셀프리더십척도(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RSLQ)를 Shin 등[15]이 번안·수정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5문항으로 3개의 하위척도, 즉 행동중심 전략 18문항, 자연보상 전략 5문항 및 건설적 사고 전략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4였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은 Baker와 Stryk [16]이 개발한 대학생생활적응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Lee [17]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각 5문항씩 총 2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Baker와 Siryk [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2, Lee [17]의 연구에서는 .85,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학업적 적응 .697, 사회적 적응 .716, 정서적 적응 .776, 신체적 적응 .487, 대학에 대한 애착 .705로 나타났다.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etz, Klein과 Taylor [18]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SES-SF)을 Kim과 Kim [19]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목표선택, 진로계획, 문제해결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Kim과 Kim [19]의 연구에서 .92였고, 본 연구에서도 .92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셀프리더십,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검정으로 분석하고, 표본의 크기가 10 미만인 군을 포함하고 있어 정규성을 가정할 수 없는 졸업고교 및 종교는 비모수적 분석방법인 Kruskal-Wallis test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은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26]의 3단계 검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Hayes[27]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대학생활적응을 파악함에 있어서 대학생활적응의 각 하위영역별 적응은 서로 별개이다. 따라서 전

체 적응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적응 양상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질적인 적응 상태를 왜곡하여 판단할 수 있다 [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 중 주요 변수와 유의하게 나타난 요인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80.0%(136명)로 남성 20.0%(34명)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졸업고교는 인문계가 92.9%(158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종교는 기독교가 31.2%(53명)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 진원동기는 '적성 또는 직업적 가치'로 답한 경우가 60.0%(102명)로 '기타(주위 권유, 취업률, 성적)'로 답한 40.0%(68명)보다 많았다. 희망진로는 '의료기관'이 71.2%(121명)로 '의료기관 외(지역사회, 학교, 산업체)' 28.8%(49명)보다 많았다. 리더경험이 있는 학생 74.1%(128명), 리더십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 55.3%(94명), 리더십교육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학생 91.8%(156명)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졸업고교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Z=-1.95, p=.046$), 사후 분석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원동기는 '적성 또는 직업적 가치'를 선택한 경우가 '기타(주위 권유, 취업률, 성적)'에 비해 더 높았고($t=3.61, p<.001$), 리더경험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9, p=.018$). 성별, 종교, 희망진로, 리더십교육 경험, 리더십교육 필요성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셀프리더십, 대학생활적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3.72 ± 0.43 점, 대학생활적응은 3.36 ± 0.50 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69 ± 0.49 점이었다. 대학생활적응 하위영역 별로는 사회적 적응 3.67 ± 0.70 점, 정서적 적응 3.56 ± 0.79 점, 대학에 대한 애착 3.55 ± 0.66 점, 신체적 적응 3.14 ± 0.59 점, 학업적 적응 2.91 ± 0.65 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셀프리더십, 대학생활적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영역(학업적 적응 $r=.39, p<.001$, 사회적 적응 $r=.24$,

Table 1. Difference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SD	t or Z (p)
Sex	Male	34 (20.0)	3.62±0.51	0.86
	Female	136 (80.0)	3.70±0.48	(.390)
Graduation high school	Academic	158 (92.9)	3.67±0.49	-1.95 [†]
	Vocational	11 (6.5)	3.94±0.37	(.046)
	Etc (qualification examination)	1 (0.6)	4.56±0.00	
Religion	Christianity	53 (31.2)	3.69±0.42	1.78 [†]
	Catholic	13 (7.6)	3.56±0.66	(.777)
	Buddhism	6 (3.5)	3.83±0.55	
	Others	2 (1.2)	3.52±0.34	
	None	96 (56.5)	3.70±0.51	
Motivation for applying	Aptitude or value	102 (60.0)	3.80±0.46	3.61
	Others (recommendation, employment rate, academic performance)	68 (40.0)	3.53±0.49	(<.001)
Desired job	Medical institution nurse	121 (71.2)	3.70±0.49	0.50
	Others (public, schools, industries)	49 (28.8)	3.66±0.49	(.617)
Leader experience	Yes	128 (74.1)	3.74±0.47	2.39
	No	44 (25.9)	3.54±0.52	(.018)
Leadership training experience	Yes	94 (55.3)	3.70±0.48	0.35
	No	76 (44.7)	3.67±0.51	(.725)
Need for leadership training	Yes	156 (91.8)	3.69±0.50	0.32
	No	14 (8.2)	3.65±0.36	(.752)

*Kruskal-Wallis test (Post-analysis not significant);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Degree of Self-leadership, Adjustment to Colleg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Variables	Categories	M±SD	Min	Max	Range
Self-leadership		3.72±0.43	2.40	4.77	1.00~5.00
Adjustment to college	Academic adjustment	2.91±0.65	1.40	4.60	1.00~5.00
	Social adjustment	3.67±0.70	1.60	5.00	1.00~5.00
	Emotional adjustment	3.56±0.79	1.00	5.00	1.00~5.00
	Physical adjustment	3.14±0.59	1.00	4.60	1.00~5.00
	Institutional adjustment	3.55±0.66	1.20	5.00	1.00~5.00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69±0.49	2.44	4.92	1.00~5.00

M=Mean; SD=Standard deviation.

$p=.001$, 정서적 적응 $r=.16$, $p=.037$. 신체적 적응 $r=.21$, $p=.007$, 대학에 대한 애착 $r=.33$, $p<.001$ 및 셀프리더십($r=.47$,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셀프리더십은 대학생생활적응의 하위유형 중, 학업적 적응($r=.31$, $p<.001$) 및 대학에 대한 애착($r=.19$, $p=.014$)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대학 생활적응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정에 앞서 Durbin-Watson 지수를 통해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지수가 1.931로 2에 가깝게 나타나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Variables	Categories	Adjustment to college						
		1	2	3	4	5	6	7
		r (p)	r (p)	r (p)	r (p)	r (p)	r (p)	r (p)
Adjustment to college	1. Academic adjustment	1.00						
	2. Social adjustment	.29 (< .001)	1.00					
	3. Emotional adjustment	.33 (< .001)	.56 (< .001)	1.00				
	4. Physical adjustment	.32 (< .001)	.39 (< .001)	.59 (< .001)	1.00			
	5. Institutional adjustment	.49 (< .001)	.44 (< .001)	.51 (< .001)	.32 (< .001)	1.00		
6. Self-leadership	.31 (< .001)	.07 (.367)	-.12 (.135)	.03 (.737)	.19 (.014)	1.00		
7.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9 (< .001)	.24 (.001)	.16 (.037)	.21 (.007)	.33 (< .001)	.47 (< .001)	1.00	

중공선성 검토를 위하여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지수를 확인한 결과, 10보다 작은 1.13~1.4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잔차의 정규성 검증을 위한 P-P 도표의 도출 결과 직선에 근사하였고, 히스토그램을 확인한 결과도 정규성 그래프로 확인되어 잔차의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므로 본 자료는 회귀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함이 확인되었다.

회귀분석은 대학생생활적응의 하위유형 중,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모두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업적 적응과 대학에 대한 애착을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회귀분석의 각 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리더경험과 지원동기를 통제변수로 투입한 후 실시하였다.

1) 학업적 적응의 매개효과

학업적 적응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독립변수인 셀프리더십은 매개변수인 학업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1, p<.001$). 셀프리더십이 학업적 적응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9%였다. 2단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7, p<.001$). 셀프리더십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21%였다. 3단계에서는 학업적 적응($\beta=.24, p<.001$)과 셀프리더십($\beta=.37, p<.001$)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0%였다. 또한 2단계의 회귀계수가 .47에서 .37로 감소하는 것을 볼 때, 학업적 적응은 셀프리더십과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4).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추출 표본수는 5,000으로 95% 신뢰구간을 통해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학업적 적응의 매개효과 계수값은 .08이었고 하한값과 상한값은 .02와 .16으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1).

2) 대학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다음은 대학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독립변수인 셀프리더십은 매개변수인 대학에 대한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9, p=.014$). 셀프리더십이 대학에 대한 애착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였다. 2단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7, p<.001$). 셀프리더십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21%였다. 3단계에서는 대학에 대한 애착($\beta=.20, p=.004$)과 셀프리더십($\beta=.40, p<.001$)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9%였다. 또한 2단계의 회귀계수가 .47에서 .40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때, 대학에 대한 애착은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4).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추출 표본수는 5,000으로 95% 신뢰구간을 통해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대학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계수값은 .04였고 하한값과 상한값은 .002와 .10으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1).

Table 4. Mediating Effect (Academic Adjustment, Institutional Adjustment)

Step	Variables	B	β	t (p)	Adj. R ²	F (p)	Bootstrapping (95%)		
							SE	LLCI	ULCI
1	Self-leadership → Academic adjustment	0.47	.31	4.20 (< .001)	.09	17.66 (< .001)			
2	Self-leadership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0.53	.47	6.85 (< .001)	.21	46.92 (< .001)			
3	Self-leadership, Academic adjustment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0	19.36 (< .001)	0.04	0.02	0.16
	1) Self-leadership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0.42	.37	5.27 (< .001)					
	2) Academic adjustment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0.18	.24	3.56 (< .001)					
1	Self-leadership → Institutional adjustment	0.29	.19	2.48 (.014)	.03	6.13 (.014)			
2	Self-leadership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0.53	.47	6.85 (< .001)	.21	46.92 (< .001)			
3	Self-leadership, Institutional adjustment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29	18.01 (< .001)	0.03	0.00	0.10
	1) Self-leadership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0.46	.40	5.86 (< .001)					
	2) Institutional adjustment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0.15	.20	2.95 (.004)					

Adj.=Adjusted; LLCI=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SE=Standard error; ULCI=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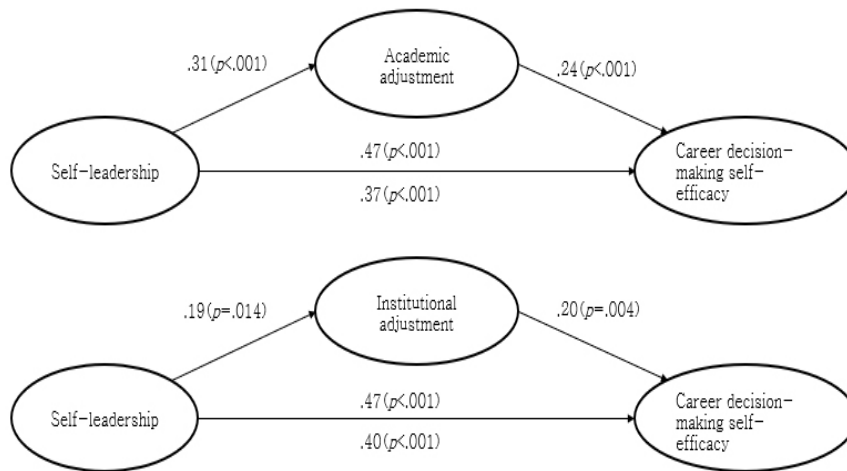


Figure 1. Mediating effect (Academic adjustment, Institutional adjustment).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대학 생활적응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평균 3.72점이었는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20]에서 실험처치 전 3.51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13]에서의 3.55점보다 높았다. 두 선행연구는 COVID-19 팬데믹 이전에 수행된 연구인데 반해,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부분 최근의 COVID-19 팬데믹 시기에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이다. 이러한 온라인 학습환경이 대상자들의 셀프리더십 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21], 온라인 수업의 경우 강의실에서의 대면 수업에 비해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더욱 중요하며, 실제 온라인 수업 시행 후 중간수준 이상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이처럼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간호대학생에 비해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향상되고 이는 자기조절, 자기통제, 자기관리의 개념이 포함되는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 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COVID-19 팬데믹 시기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2~4학년 대상연구[21]에서의 3.97점보다는 낮았다. 셀프리더십은 대학 입학 이후의 교육과 경험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데[23], 재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에 익숙해지고 전공교과목 학습뿐 아니라 교과의 활동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함으로써 대학생활을 주도적으로 리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6]. 그러나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 경험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포함하여 학년 등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평균 3.36점이었으며,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는 각각 사회적 적응 3.67점, 정서적 적응 3.56점, 대학에 대한 애착 3.55점, 신체적 적응 3.14점, 학업적 적응 2.91점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간호대학생 대상연구[24]에서의 3.24점과 4학년 대상연구[25]에서의 3.49점과 비슷했다. 하위요인별로는 같은 도구로 측정된 Yoo의 연구[24]에서 사회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학업적 적응 순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공통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하위요인인 사회적 적응은 대인관계, 교내활동 참여도 및 학교 환경시설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16]. 이는 간호학과의 특성상 1학년부터 다양한 전공 및 교양 교과목의 수업 참여와 그에 따른 활동으로 동료들과 함께 학교 수업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소속감과 교우관계를 경험함으로써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학업적 적응은 학업수행 요구에 대한 적응과 학업적 노력의 효율성을 의미하는데[7,16], 간호대학 신입생들이 타과 학생들에 비해 과중한 학점 이수과 커리큘럼 등의 학업 수행 요구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균 3.69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간호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Park 등[2]의 연구에서의 3.80점보다는 약간 낮았고,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Seo와 Moon [12]의 연구 3.44점, Kim과 Ko [13]의 연구 3.52점보다는 높았다. 이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28]에서 1학년이 타 학년들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으로[8], 간호대학 신입생은 간호학과 입학부터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어 진로결정이나 자신감이 더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2].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것은 취업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지고[29],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로 인해 진로결정을 위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입생 시절부터 진로선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진로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특성 중 지원동기와 리더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신의 적성 또는 직업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원한 경우 취업, 성적 또는 주위 권유 등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한 경우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 개인의 적성보다 취업이나 주위 권유에 맞추어 간호학 전공을 선택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30]. 이러한 어려움은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결정하기 위한 자신감의 감소로 이어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리더경험이 있는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간호학과의 특성상 팀별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리더의 역할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12], 이러한 축적된 경험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간호학과 선택동기를 고려한 심층적인 개별 상담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개별적인 역량에 맞추어 리더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셀프리더십 및 대학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유형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셀프리더십은 대학생활적응 중, 학업적 적응 및 대학

에 대한 애착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과의 관계[12-1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2] 그리고 대학생활적응과 셀프리더십의 관계[6]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 대상의 동일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일반 대학생 대상의 연구[7]에서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대학생활적응을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각 변수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학생활적응은 전체 적응을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각 하위요인별 적응은 별개이므로[16] 향후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경험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업적 적응과 대학에 대한 애착이 각각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학업적 적응 및 대학에 대한 애착이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반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7]가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지만,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해서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어 직접 비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대학생활적응 중 학업적 적응과 대학에 대한 애착이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적 전략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수행한 후 자기보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특성이 포함되는데[9],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은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소인 학업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또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켜 자기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셀프리더십이 높은 경우, 학업적 과제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들과 적절한 사회관계를 유지하며 애착을 가지고 대학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대학에 대한 애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7].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학업적 적응 및 대학에 대한 애착과 상호작용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진로선택 그리고 진로계

획의 실천에 중요한 변인이며[7], 간호대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학업을 이수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간호사로서 임상현장에 대한 적응력이나 이직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역량이다[12].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직업에 대한 적응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진로행동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신념과 태도가 필요하다[2].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적 적응 및 대학에 대한 애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와의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개별상담, 선배 간의 교류를 위한 멘토 프로그램 및 대학 차원에서의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과 더불어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교육 목표 및 과정에 부합하는 개별적인 학업계획을 학생 스스로 설정하도록 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학업 이수 과정에서 문제해결과정에 학생을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과정 전략을 마련한다면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 중 학업적 적응과 대학에 대한 애착 요인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문을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간호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부분 고등학교 시절 COVID-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을 받고 간호대학에 입학한 특별한 상황의 신입생일 가능성이 크므로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의 내적 역량과 대학생활적응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차이 및 감염병 전후 수업 방식 등을 포함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 특성 변수들을 다양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통계를 적용하는 연구를 통해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셀프리더십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두 변수 모두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은 학업적 적응과 대학에 대한 애착인 것으로 나타났고,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학업적 적응

과 대학에 대한 애착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탐색할 때 셀프리더십과 대학생활적응(학업적 적응 및 대학에 대한 애착)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진로 탐색 및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1. Moon IO, Lee GW.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0;16(1):83-91.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083>
2. Park HO, Park SJ, Kim JY, Choi HS. The effects of college life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turity of career attitude of new nursing student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1;22(9):136-146. <https://doi.org/10.5762/KAIS.2021.22.9.136>
3. Jung JS, Jeong MJ, Yoo IY.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1):27-36.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1.27>
4. Sung JH. Influences of gender equality, vocational identity, and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20;22(6):2443-2456. <https://doi.org/10.37727/jkdas.2020.22.6.2443>
5. Lee KA, Kim JH.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2015;12(1):42-49. <https://doi.org/10.16952/pns.2015.12.1.42>
6. Oh YJ, Lee ES, Park MS, Lee EM. The effect of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self-leadership on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21; 23(2):787-797. <https://doi.org/10.37727/jkdas.2021.23.2.787>
7. Cho HJ.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leadership, college adjustm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17;30(1): 63-80. <https://doi.org/10.32341/jcer.2017.06.30.2.63>
8. Taylor KM, Betz NE. Applications of self 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83;22(1):63-81. [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
9. Houghton JD, Neck CP.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002;17(8):672-691. <https://doi.org/10.1108/02683940210450484>
10. Manz CC, Neck CP.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99. p. 1-132.
11. Kim EA, Jang KS.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2;18(2): 312-322. <https://doi.org/10.5977/jkasne.2012.18.2.312>
12. Seo KW, Moon HK.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self-leadership, resilience, self-efficacy, self efficacy of career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8;8(6):233-242. <https://doi.org/10.35873/ajmahs.2018.8.6.020>
13. Kim NS, Ko YJ.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0;18(1):211-218. <https://doi.org/10.14400/JDC.2020.18.1.211>
14. Yu HS.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go-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21;23(4):1843-1854. <https://doi.org/10.37727/jkdas.2021.23.4.1843>
15. Shin YK, Kim MS, Han YS.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09;6(3):313-340. <https://doi.org/10.16983/kjpsp.2009.6.3.377>
16. Baker RW, Siryk B.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84;31(2):179-189. <https://doi.org/10.1037/0022-0167.31.2.179>
17. Lee YJ. The non-residential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plans [master's thesis]. Seoul: Ehwa Womans University; 1999. p. 1-92.
18. Betz NE, Klein KL, Taylor KM.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96;4(1):47-57. <https://doi.org/10.1177/106907279600400103>
19. Kim MJ, Kim BW. The effect of anxie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2007;20(1):13-25.
20. Jung IS. Effects of peer teaching on self-leadership, psychological capitals and learning satisfaction among nursing freshme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020;10(9):71-78.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09.071>

21. Kim YS, Lee HJ.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on the media literacy and learning agility of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online clas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1;27(4):359-368.
<https://doi.org/10.5977/jkasne.2021.27.4.359>
22. Kim KH. Influencing factors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differences in media literacy and grit after online semester under COVID-19.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2021;24(1):272-279. <https://doi.org/10.35280/KOTPM.2021.24.1.31>
23. Park SJ, Park IS. A study on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2021;11(3):67-87. <https://doi.org/10.35273/jec.2021.11.3.004>
24. Yoo KH. A study on th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8;24(3):269-278.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3.269>
25. Shin EJ. Adaptation of college lif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focused on alternative clinical practicu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2;22(24):1-9.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24.1>
26. Baron RM, Kenny D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
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6;51(6):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27. Hayes AF.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22. p. 1-73.
28. Hyun HS, Kim YY. Moderating effect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8;24(1):29-38.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1.29>
29. Choi HJ, Jung KI.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job-seeking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8;24(1):61-72.
<https://doi.org/10.11111/jkana.2018.24.1.61>
30. Kim MY, Kang EH, Park HJ.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empathy ability and problem-solving skills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1;21(10):283-294.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0.283>